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겨울에 할 수 있는 일

성경: 시편 126편

Tag:

1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혔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126:1-6)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냥 꿈 속의 나라, 염원하는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꾸고 일구어야 할 나라이다.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는 많지 않다. 여행하고 싶은 나라는 많지만, 내가 가족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나라는 많지 않다.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욕구는 이주의 욕구다. 더 좋은 집, 더 살기좋은 땅으로 이사하고 싶어한다. 이 이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인류는 발전하였다.(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함)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모여 산다. 가끔은 나도 삼시세끼에 나오는 고창 구시포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항상 살기는 좀 그렇다. 북한 사람은 남한으로 오고 싶어한다.

요즘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는다. 물론 더 많은 외국인이 미국을 찾는다. 여전히 전 세계 1위 선호국은 미국이다. 땅덩어리도 넓어서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그곳에 가서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대서양을 건넜다.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려는 열망이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의해서 미국이 탄생하였다. 여전히 미국은 독실한 크리스천의 나라다.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미국은 엄청난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비롯한 어마어마한 땅을(미시시피강 대부분, 에팔레리차 산맥에서 록키산맥 사이의 대부분 평야, 오대호에서 멕시코까지) 헐값에 사들이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 들였다. 서쪽 대부분의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쟁하지 않고 사들임. 어마어마한 평지의 나라, 대서양과 태평양을 점령한 나라, 지구 상 가장 큰 핵심요지의 땅이 되어 버렸는데, 한 나라가 통치하게 되었다. 지리적으로 중국, 러시아보다 월등하게 운 좋은 나라.

무엇보다 전 세계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나라.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나라다. 애국자였고, 독립운동가였으며, 고종황제에게 대항하여 감옥에 갇혀있다가 성령받고 미국 특사로 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일생을 보낸 대통령.

미국 건국의 스토리에 비하면 초라한 면이 있지만, 결코 뒤지지 않는 스토리가 있다. 김일성 후예들의 화려한 거짓말 때문에 영혼까지 털려서, 적폐요 토착왜구로 취급당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이승만대통령에게 대적하는 국민이 없었을 정도였다.(대적자들 모두 북한으로 보내줌.) 왜냐면 대한민국의 국부로 존경받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김일성에게 가장 미움받는 존재였다. 자신의 적화야욕을 깡그리 깨 부순 영웅이었기 때문에 원수처럼 여겼다.(서울대 역사학 교수와 그 후예들에 의해서 근대사 왜곡됨)

이승만 대통령의 뒤를 이은 영웅이 탄생하지 않아 정권 말기에 늙은

이승만의 업적을 등에 업은 도둑들에 의해서 나라가 휘청거렸지만, 이내 박정희대통령이 나서서 나라를 부국강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이후로 수많은 대통령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각자 큰소리를 쳤지만, 앞선 두 대통령의 업적을 이어받은 덕을 뛰어넘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 팔목할만한 전진을 이루지는 못했다. 뒤로 물러난 사람 한분(IMF), 아예 나라를 통제로 거덜내고 있는 사람 한분. 정권의 생명연장을 전염병에게 신세지고 있는 정부. 여전히 조선식 고종황제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를 하면서 실제로 조선시대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상황.

놀랍게도 나라를 중국과 북한에게 상납하고 싶어하는 상황.

조선시대 500년, 일제 강점기 36년, 변종 공산주의 김일성 일가 세습정권 75년. 묘하게 이 세가지 정치체제는 닮은 꼴이다. 아직도 이 땅에는 망국의 저주가 흐르고 있는 셈이다.

그 저주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대로 된 나라를 꿈꾸며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며 나라를 일구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들이 있다. 바로 한국교회가 그들이다.

한국교회 120년 역사 중 얼마나 많은 성자들이 있었나?

한국기독교100년사 10권짜리. (내가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가 사 주심)

황해도 황주 출생 방애인. 평양 숭실여학교, 개성 호수돈여학교 수석 졸. 전주 기전여학교 교사로 발령. 학생들의 어머니. 24세의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로 죽을 때까지 거리의 천사로 불렸던, 기독교인. 고아원을 세우기 위해 8000여 가구 방문모금. 스승 배은희 목사가 ‘방애인 소전(1934)’을 씀.

1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땅의 탐관오리들의 압제는 600여년동안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북

한 땅은 600여년동안 영적인 겨울이다.

겨우 남쪽만 복음의 힘을 얻어 75년 전부터 복된 나라를 일구어왔다. 그런데 지금 남한도 영적인 겨울로 접어들었다. 경제는 멈추었고, 정치는 난장판, 심지어 검사들까지 반항하는 사태를 직면하고 있어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제 75년을 지나오면서 남한도 겨울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포로생활을 끝낼 때가 되었다.

새벽이 깊었지만, 아침이 곧 온다.

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혔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120년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

이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들;황무지 사막이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로 초원을 이루는 곳.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소망의 씨, 복음의 씨, 경건의 씨를 뿌리자.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126:1-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고난 중에, 핍박 중에, 궁핍한 중에 소망의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분.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감사와 칭찬의 부동호

성경: 잠언 27장 17-21절

Tag:

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18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19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
치느니라

20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21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잠
27:17-21)

17. 칭찬. 칭찬은 (3톤의 뽕)고래를 춤추게 함. 긍정적인 관심과 칭
찬, 격려.

(즉시 칭찬, 구체적으로 칭찬, 가능하다면 공개적으로 칭찬, 결과 보
다 과정을 칭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칭찬, 진실하게 칭찬, 긍정
적인 눈으로 칭찬, 어려울 때 격려, 실수에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
릴 것.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칭찬의 유익. 칭찬은 모방의 시작. 모방은 경쟁의 모멘텀.(추세;분위
기 형성)

좋은 학교는 좋은 친구가 있는 학교.

사람은 경쟁을 통해서 도약한다.

21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공개적)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
니라

사람은 모방의 천재. 창의보다 모방천재. 제대로된 모방 쉽지 않다.

창의는 모방7제공. 제대로 따라해야 창의적인 생각이 튀어나온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백사리 남. 나사 하나 빠지면 백사리. 고음이 탈. 300점 이하는 맛세이 금지.

뛰어나지 못함은 명칭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모방하려고 하지 않아서.

18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18. 인과응보

주인에게 시중 듬.

영화에 이르는 시중.

시중이란 사람이 사람에게 서비스 하는 것.

상하관계, 주종관계 처럼보임.

그러나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

-사람은 다스림 받도록 지음받지 않았다.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들은 사람 아닌 세계.

-사람은 존중의 대상. 그는 하나님의 형상.

19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19. 누가 되었든,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은 있다. 자신은 존중을 받되,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럼 좋은 어떻게 하는가? 가르침의 대상. 그러나 존중이 먼저.

-좋은 돌봄의 대상. 일을 가르치는 대상. 일을 통해서 별이를 하고, 별이를 통해서 생활하게 함.

-만약 종이 주인을 존중하게 되면, 그는 나중에 두둑한 퇴직금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은 원수가 되기 쉽다.

-마땅한 대우와 임금지불이 우선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산해주신다.

-주종관계든, 어떤 관계든, 사람관계는 대등관계요, 존중관계이다.

-자신이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할 것이요, 존중을 모르는 자와는 거리를 둘 것이다.

2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잠27:2)

-칭찬이란 별어들이는 것.

● 그러나 칭찬은 경쟁관계로 해석해야 좋다.

20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구약의 지옥개념

아바돈;죽음의 천사(파괴의 악마, 아바도h, 무저갱)

-만족해야 칭찬하는 것 아님.

-불만족 속에서 칭찬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칭찬의 기술. 자신의 기술 부족을 상대방의 미숙함 탓으로 돌리지 말라.

-당신의 눈높이는 지옥과 다를 바 없다.

(상대방이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당혹스러운 듯 한마디 합시다. '이런 지옥스런 눈높이, 만족이 없네?')

"잘했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다. "고마워, 도움이 되었어"라고 감사를 전해야 한다. 감사 받는 기쁨을 체험하면 자진해서 공헌을 반복할 것이다. _Alfred Adler

칭찬의 부작용.

칭찬의 오판부대 효과, (언제 칭찬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압박감 창작효과.)

칭찬의 분명한 효과를 기대하려면

-정말 무엇을 어떻게 잘 했고, 나는 어떻게 감동되었는지, 내 생각은 어떤지를 문학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례.

